홍명보호, 25일 A매치 명단 발표

내달 7일 오전 6시 미국 · 10일 오전 10시 멕시코 상대

홍명보호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준비를 위해 다시 닻을 올린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에 나설 축구대표팀 명단을 발표한다. 시간은 오후 2시로 예상된다.

축구대표팀은 내달 7일 오전 6시(한국 시간)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미국과, 10일 오전 10시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 파크에서 멕시코와 두 차례 A매치를 벌인다.

명단 발표는 보통 오전에 진행되지만, 이번 기자회견은 오후로 늦춰졌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뉴시스를 통해 "새 시즌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를 비롯해 유럽 리그들이 늦게 개막해 곧바로 코칭스태프 미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선수들을 보고 여러 회의를 진행한 다음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에서 눈도장을 찍었던 새 얼굴들이 다시 태극마크를 달 수 있을지 관심이다.

명단 발표 이후 축구대표팀은 내달 1일 오전 10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모여 미국으로 떠난다.

프로축구 K리그1 시즌이 한창이라 출국 전 별도의 훈련은 진행하지 않는다.

본진은 홍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K리거 등으로 구성되며, 주장 손흥민(LAFC)을 포함한 해외파는 미국 현지에서 합류한다.

축구대표팀은 미국과 멕시코를 차례로 상대한 뒤 11일 귀국할 예정이다.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하는 홍명보호가 동아시안컵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축구화 끈을 동여맨다.

이번에는 월드컵 개최지에서 개최국들과의 귀중한 스파링 무대를 갖는다.

홍 감독은 유럽에 머물며 해외파를 점검 중인 주앙 아로소 수석코치와 티아고 마이아 코치, 한국에서 K리거를 체크하고 있는 국내파 코치들과 소통하며 9월 A매치 명단 확정에 집중한다. /뉴시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 1회 초 선두 타자 홈런을 친 후 베이스를 돌고 있다.

생일 맞은 이정후, MLB 샌디에이고전서 자축포

최근 매서운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는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27번째 생일을 맞아 자축포를 터뜨렸다.

이정후는 20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벌어진 2025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1회초 첫 타석에서 선두타자 홈런을 때려냈다.

이정후가 홈런을 친 것은 5월15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 이후 97일 만이다.

18일 탬파베이 레이스전에서 2루타를 친 이후 2경기 만에 장타를 날린 이정후는 8경기 연속 안타 행진도 이어갔다.

/뉴시스

양지인, 아시아사격선수권 여자 권기권총 10m 은메달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지인(한국체대)이 제16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에서 공기총으로 첫 국제대회 메달을 수확했다.

양지인은 지난 19일(한국 시간) 카자흐스탄 심켄트에서 열린 대회 공기권총 10m 여자 일반부 결선에서 241.6점을 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43.2점을 기록해 1위에 오른 마 첸커(중국)와는 1.6점 차다.

양지인은 유현영(서산시청), 김보미(부산시청)와 함께 출전한 공기권총 10m 여자 단체전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양지인은 파리 올림픽 당시 화약을 사용하는 25m 권총으로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선 화약총이 아닌 공기총으로 처음 국제 대회 시상대에 오르며 값진 성과를 거뒀다.

/뉴시스

동료 선수들이 뽑은 'PFA 올해의 팀'

잉글랜드 리그1 버밍엄 백승호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백승호(28)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1(3부 리그) 잉글랜드프로축구선수협회(PFA) 올해의 팀에 이름을 올렸다.

PFA는 20일(한국 시간) 2024~2025시즌 리그1 올해의 팀 명단을 공개했다.

PFA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챔피언십(2부 리그), 리그1, 리그2(4부 리그) 등 남자 프로 최상위 4개 리그와 여자 최상위 리그에서 활약한 주요 선수들에게 매년 상을 수여한다.

매년 1월 PFA 회원들이 후보 명단을 작성하고, 각 리그 선수의 투표로 수상자가 결정되는 구조다.

시즌을 함께 보낸 프로축구 선수 동료들이 뽑는다는 점에서 의미는 배가 된다.

지난 2021~2022시즌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공격수 손흥민과 공동 득점왕(23골)을 차지했던 EPL 리버풀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이집트)가 EPL PFA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리그1에서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백승호가 올해의 팀에 선정돼 이목을 끌었다.

버밍엄 시티의 백승호가 19일(현지 시간) 영국 맨체스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2025 영국축구선수협회(PFA) 2024-25 잉글랜드 리그원(3부 리그) '올해의 팀'에 선정돼 트로피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백승호는 지난해 1월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를 떠나 버밍엄으로 이적했다.

K리그 대표 구단인 전북에서 활약하던 한국 국가대표가 잉글랜드 3부 리그로 가는 것에 의문이 따랐다. '유럽'이라는 두 글자로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선택이었다.

더욱이 백승호는 FC바르셀로나(스페인) 유스 출신으로 지로나(스페인), 다름슈타트(독일) 등 유럽 상위 리그에서 활약한 바 있어 물음표는 더 크게 다가왔다.

하지만 백승호는 EPL을 바라보는 버밍엄 구단의 비전에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시즌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 리그 41경기에 출전해 1골3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2부 리그 승격에 크게 기여했다.

백승호를 앞세운 버밍엄은 리그1 46경기에서 단 3패만 기록, 승점 111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에 백승호를 비롯한 이와타 도모키(일본), 제이 스탠스필드, 에단 레어드, 알렉스 코크레인, 라이언 알솝(이상 잉글랜드), 크리스토프 클라레르(오스트리아) 등 무려 7명의 선수가 리그1 PFA 올해의 팀에 선정됐다.

버밍엄의 상승세는 2025~2026시즌까지 이어지고 있다.

챔피언십은 지난 9일 개막해 2라운드까지 진행됐다.

버밍엄은 1승1무(승점 4)로 리그 상위권에서 좋은 출발을 보였다.

2025~2026시즌 잉글랜드 리그컵 1라운드도 통과하는 등 순항 중이다.

백승호는 이번 시즌 치른 공식전 3경기를 다 소화하고 있다. /뉴시스

익산서 즐기는 한여름밤 야구 축제

22일 kt wiz 퓨처스 서머리그

뜨거운 여름밤, 야구와 치킨 · 맥주가 함께하는 축제가 익산야구장에서 열린다.

익산시는 kt wiz 야구단과 함께 오는 22~24일 익산야구장에서 '퓨처스 서머리그' 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t wiz 2군 연고지인 익산에서 시민과 야구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름밤 축제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삼성 라이온즈와의 퓨처스리그 경기가 열리며, 매일 오후 6시 경기를 앞두고 오후 4시 30분부터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관람객에게는 치킨과 맥주가 제공되며, 갤럭시 Z플립7을 비롯한 푸짐한 경품 추첨과 이닝 이벤트도 준비돼 있어 재미를 더한다.

또 입장이 시작되는 오후 4시 30분부터 선수 팬 사인회가 열려 야구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다. 오후 6시 경기 개막과 함께 kt wiz 치어리더팀의 열정적인 응원전이 더해져 관람객들과 함께 뜨거운 응원 열기를 만든다.

익산시는 kt wiz 야구단과 함께 오는 22~24일 익산야구장에서 '퓨처스 서머리그'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퓨처스 서머리그. 〈사진=익산시청 제공〉

특히 첫날인 22일에는 장지환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시구에 나서며 3일간 이어질 야구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야구장에서 시민과 팬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여름 축제가 열린다"며 "많은 분이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KBO, 'K-베이스볼 시리즈' 한일전 응원단 운영사업자 입찰 실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5 K-베이스볼 시리즈' 한일전 야구 국가대표팀 응원단의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응원단은 오는 11월 도쿄돔에서 열리는 '2025 K-베이스볼 시리즈' 한일전에서 선수단 격려와 선전을 지원하고, 한국 고유의 응원 문화를 해외에 선보일 예정이다.

선정업체는 원정 응원단 구성과 운영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내달 2일 오전 11시까지 KBOP(KBO 마케팅 자회사) 마케팅팀으로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등을 포함한 입찰 희망 메일을 제출한 뒤 제안요청서와 제출 서류 양식을 받아야 한다.

해당 서류를 구비해 내달 9일 오전 11시까지 KBOP 마케팅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뉴시스